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현안사업 해결 국비확보 총력

10개사업 국비 1천억 원 우선지원 건의

최근 우승희 영암군수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우원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역국회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과 전해철 국회의원의원실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우원식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 대불산단 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이중화사업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 미국종합처리장(RPC) 현대화시설 신축 ▲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지원사업 ▲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국도 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공사 ▲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 건립 ▲ 월출산 깃대종 낚성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 스마트 작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1천억여원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건의했다.

앞으로 영암군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 국비 미반영사업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군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국회, 중앙부처, 전남도 등과 지속적·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채널을 동원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전략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만큼 대내·외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앙재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민 기자



최근 우승희 영암군수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역국회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과 전해철 국회의원의원실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영암군 제공

강진군수협, 장학금 기탁

최근 강진군수협조합(조합장 박범석)이 강진군실내체육관에서 특별한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00년 역사를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에 300년 뒤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장학금 300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에 기탁했다.

강진군수협조합은 조합원과 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강진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내수면양식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진출을 준비중이다.

박범석 강진군수협조합장은 “수협을 사랑해주시는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작년 한해 19억여원의 순이익,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100년 역사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이사장은 “강진수산업의 백년대계를 또 다시 완성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신안군, 가뭄 극복 선제 대응 효과 ‘톡톡’

30년 만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신안군은 전체가 섬으로만 형성돼 대부분 지방상수도도 평시에도 육지에 비해 급수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유례없는 30년 만의 가뭄으로 11월 14일 기준 신안군의 강수량은 654mm로 평년 강수량의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상수도 13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17~3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해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신안군은 가뭄 장기화를 예상해 금년 2월부터 재난 수습이 아닌 사전 대응을 위해 대체수원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등 총 4단계로 사전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해 대응했다.

이 대응 계획에 따라 신안군은 자체 예산 28억원을 조기 투입해 지하

수, 농업용수 펌핑 등 대체 수원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상수도를 이용한 농작물 물주기 금지 등 물 절약 캠페인을 적극 진행했다. 캠페인 결과 압매·비금면의 경우 하루 450톤 이상의 물 절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유수율을 50.3%에서 87.9%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선제 대응하는 신안군의 노력이 가뭄 기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금년 12월 매화도를 시작으로 2025년 중부권 4개 면, 2030년까지 흑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신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홍근 기자

무안군 남악-해제면 도농교류창안대회

무안군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노인회(회장 김윤광)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제면 수포마을(이장 최정현)이 최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창안대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직거래 장터 판매는 해제면 수포마을에서 신고 온 해제산 농산물(소금, 콩)을 가지고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내 광장

에서 진행됐다.

해제면 수포마을은 남악신동아파밀리에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직거래장터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남악-해제면 직거래 장터는 오는 26일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광장에서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현 이장은 “해제는 무안에 열전 3곳 중 2곳이 있는 지역으로 고 품질의 소금을 저렴하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전했다.

하영미 해제면장은 “꾸준한 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악과 해제는 지난달 초에 첫 창안대회를 열어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꾸준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고민재 기자

함평군, 청소년 한마당 성료

‘제11회 함평군 청소년한마당’ 행사가 최근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함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1부(체험마당)와 2부(공연마당)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 의미를 더했다.

1부 체험마당에서는 해나 타투, 풍선아트, 놀알콜라주 등 총 7가지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2부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모듬북-두드림’ 팀의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밴드,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이문수 기자

목포시, 하당 통일대로 육교 흔들림 진단

안전정밀진단 보행자 차단...안전사고 예방 사전 점검

목포시가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17시 30분 목포경찰서와 소방서 상황실로부터 “보행자가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안전전문 용역사, 시설물 관리업체 등과 함께 당일 야간에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점검에서 구조와 안전상 특

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최근 사회적 안전 증대 육구가 커짐에 따라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의 보행자 통행을 차단하고, 지난 14일부터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밀진단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육교 개방시기를 결정할 방침인데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 후 개방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번

축가네 경성굴비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품질축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